

지난 2월 10일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국치일(國恥日)이었다. 한 나라의 수도인 서울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어이없게도 불에 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를 지켜보면서 온 국민의 마음도 새카맣게 탔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긍심도 무너져 내렸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화재 이후의 뒤처리 과정은 더욱 실망스럽다. 사회에 대한 개인적 불만으로 문화재 방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방화범이 '인명 피해는 없었고 문화재는 복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하는 꼴이나, 200억을 들여 3년이면 복원할 수 있다고 서둘러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문화재청 관계자나, 복구비를 국민성금으로 하면 좋겠다는 대통령 당선자나 모두 오싹보 백보가 아닌가.

숭례문 중건을 위해 국민들은 자원봉사 문의를 하고, 네티즌들이 목재 찾기 운동을 하는 등 국민이 하나 돼 숭례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라 밖에서 이루어졌다. 영국 런던에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유럽에서 파리와 베를린에 이어 세 번째 정식으로 개원한 것이다.

영국 문화원 본부, 캐나다 하우스, 영국미디어 체육부, 내셔널 갤러리 등이 운영한 트라팔가에



불자 세상보기

이 기선 조계총성보문화재위원

숭례문과 런던의 한국문화원

아시아 국가의 해외문화원이 처음으로 들어선 것이다. 인류의 확산과 한국문화의 홍보거점이 마련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안에 인도·이집트·스페인 세 곳에 해외문화원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라 한다. 현재 12곳에 개원한 해외문화원을 2013년까지 총 30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며, 선진국 중에서 벗어나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별 진출을 위한 전략지를 선별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또한 해외문화원을 중심으로 관광공사,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 기관을 통일 장소

에 입주시켜 문화거점화하는 코리아센터로의 전환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현재 코리아센터는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상하이 등 3곳에 운영 중이다.

이제 우리 문화도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 속에 그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참으로 반갑고 뜻 깊은 일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라는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한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그 나라가 지닌

문화가 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이것이 미래를 가꾸는 핵심이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화두이다.

숭례문을 되살리는 일, 그것은 단지 옛 모습대로 건물을 짓는 데 있지 않다. 겉모습만 닮았다고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 숭례문에 담겨 있던 역사상과 문화상을 살피고 이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한 노력과 지혜가 함께 깃들어야 한다.

숭례문의 비극은 우리 시대의 참극(慘劇)이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말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그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중지(衆智)를 모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회성 전시 공약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철저하게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바탕 위에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법률적인 보완, 획기적인 예산확보와 탄력적인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화는 국력이다. 그리고 문화는 국가의 품격이며 아울러 국민의 행복감을 고취시킨다.



해제, 또 다른 출발일 뿐

전국의 선원에서 동안거에 들었던 2000여 출가 대중과 각 사암에서 정진했던 재가불자들이 2월 21일 정월보름을 맞아 안거를 해제했다. 작년 10월 15일(음력) 각자의 화두를 풀고 안거에 들었던 수행자들이 얼음 풀리는 계곡을 따라 만행을 나선 것이다.

여름과 겨울에 이루어지는 안거수행의 전통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하다. 불교가 수행의 종교라 불리는 것도 바로 안거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한 장소에 일정기간동안 대중이 모여 정해진 규율에 따라 생활하며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안거의 전통은 불교가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 다시 말해 자기를 비우고 버려리는 가르침을 혼속하고 체화하기에 꼭 맞는 수행방법이다. 물론 결제와 해제라는 개념은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는 형식으로써의 결제와 해제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쉬 쉬는 때 순간 수행자로서의 '갈망'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견성성불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행자에게 해제 날은 또 다른 수행의 길은 나서는 날일뿐이다.

그래서 방장 조실스님들은 한 걸 같이 결제와 해제를 조율해 자기의 근본을 뒤으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출가 수행자 재가불자간 하루하루가 매일 수행하고 정진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

직장불자회에 관심과 지원을

이 달 들어 대전지방경찰청불자회가 창립됐고 서울시 공무원불자연합회도 창립됐다. 대전지방경찰청불자회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분청이 되면서 독자적인 실행단체를 결성했다. 광주지방경찰청불자회도 똑같은 경우다. 서울 시공무원불자연합회의 경우 서울시내 소속된 20개 구청 불자회가 연합회를 꾸린 것이다.

이 세 단체의 창립은 조직 형성 과정에 상반된 개념을 갖지만 내용적으로 분명한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활기(活氣)'다. 공직에 있는 불자들의 불심이 개인의 실행 차원을 넘어 동료애와 임무에 대한 열정적인 활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들 세 단체는 새로운 틀을 꾸리면서 조직의 외형적 확대와 성지순례 정기법회 등을 통한 신고취를 다짐하고 있다. 실행단체의 근본을 튼튼하게 지켜가겠다는 의지다. 세 단체의 창립법회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중 스님도 내실과 외형을 함께 증장시키는 모범적인 모안이 될 것을 주문했다.

직장은 가장과 함께 한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단위조직이다. 그래서 가장신행 만큼이나 직장에서의 실행활동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정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만 봐도 직장에서의 실행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늠되는 일이다.

사회와 기본단위에서 자체 활동하는 직장불자회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출범한 세 단체가 직장불자회 활동의 모범이 되고, 직장불자회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황수경(영국대 선학박사)

아침 5분 참선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참선이란 좋은 것

대학생 이군은 참선의 효과에 대해서 배우고 놀랐다. 하루에 잠시라도 집중하여 참선을 하는 것이 건강도 좋아지고 기억력, 이해력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의 마음 다스리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한단 말인가. 매일 약속이 있고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스님께 "전 귀가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하루 중 언제 그 참선이라는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시면 못할 것 같아요"라고 여쭈었다. 스님은 "그래, 바쁘고 열심히 사니 일정한 시간을 정해 참선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아침시간을 활용해보세요. 저녁에는 일이 많아 잠자는 시간을 매일 똑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기상시간만큼은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 보세요. 하루를 항상 같은 시간에 시작한다는 것, 그 리듬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라고 하였다.

좌선으로 여는 아침

이군은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았다. 아침에 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⑤2 아침 참선의 에너지

어나서 우선 5분간만이라도 참선을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하루를 시작하는데 더 의욕이 생기는 것 같다. 웬지 더 안정되는 느낌이다. 비록 아침 시간이 제일 바쁘지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 어보았더니 활기가 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주일을 꾸준히 해 보니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3주째 이제 아침 5분 참선이 점차 몸에 배어 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10분으로 늘려가려고 한다. 해보았더니 15분까지 가능했다. 처음에는 5분간 앉아있던 것에 익숙해서 5분이 넘으니 몸이 저절로 일어나려고 한다. 그래도 일찍 일어나고 15분간 앉아있었다. 어려웠다. 금방 일어나려 했지만 참았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고비가 왔다.

잘 되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아, 5분만 더 앉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전날 늦게 잠 자리에 들고 난 아침은 특히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유난히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핑계는 항상 있었다. 군에 입대하는 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우는 녀석, 또 토의점수가 잘 나왔다고 한턱 쏘겠다는 선배 등. 이걸 거절할 수는 없지 않나 하면서 아침에 "어제는 술 많이 마셨으니 까 오늘은 못하겠어"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다.

실제로 몸이 피곤하여 잠을 더 자야할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2주간 아침 참선을 하는 등 마는 등 하게 되었다.

한국전통따주기 지도사 강좌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제 시 업지순돌 뿌리 밭을 바느질 따주기로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뼈 부러진 곳과 수술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비장만 따도 내 명의 반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압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자녀 교육에 활용
■ 신도 포교에 활용
■ 따주기 사회봉사
■ 생활 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급, 응급, 기절, 경기 등)
■ 이웃에 건강 복 짓기 활용

강좌세부 내용

한번의 수강으로 이론,실습 모두 학습

- 가. 1일차(09:00 ~ 22:00)
■ 우주의 기원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공해)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나. 2일차(09:00 ~ 13:00)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수치의 비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중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12명)

-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 일정 : 2008. 3. 1(토) ~ 3. 2(일)(금요일 오후 도착가능)
■ 강사 : 충남청양교육장(충남 청양군 소재)
■ 수강료 : 40만원 (순항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준비물 : 필기구, 편한 옷(또는 운동복)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름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글로벌케어크림을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뺏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뺨 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뺏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츠리기만 하면 통증이 오면 내가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 너무 좋아해 무리만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로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편했지만 팔꿈치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건이 될 수 있다. 120ml x 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림 015-01-415953 최성욱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가증상으로 느낍니다.
이 치약은 사용후치약 치아가 윤곽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후 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림 015-01-415953 최성욱